

Smart Work.

똑똑하게 일하는 똑똑한 기업들
한국 사례집



똑똑한 세상 이야기

여름 장마가 물러가면서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장거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같은 날씨는 참 고역입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화 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스마트 워크(Smart Work)' 활성화라는 흥미로운 계획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스마트 워크'에 대해 그 동안 IBM의 경험과 제가 가진 생각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IBM 직원 60%는 왜 자기 책상이 없을까?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찾는데 매일 2시간을 소비하며 일주일에 5.3시간을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워크'는 IT의 도움을 받아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해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똑똑하게" 일하자는 것입니다. IBM은 모바일 오피스, 재택근무, 유연(탄력)근무제 등 스마트 워크플레이스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1995년 처음 시행한 모바일 근무제는 직원들이 지정된 사무실 공간 대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유연하게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대 고객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사무실의 공간활용을 극대화해 연간 약 22억 원의 임대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야 직성이 풀리는 대면 문화 때문에 국내에서 스마트 워크가 잘 정착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BM의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한국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모바일 오피스 시행 초기 실시한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 약 70%가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75%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재택근무제 역시 실시 이전과 이후에 성과 측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긍정적이라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도 77%로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스마트 워크

'스마트 워크'를 통해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려면 우선 기업 내 조직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UC)'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무선 그룹웨어와 화상회의,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등을 단일 플랫폼에 통합시키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스마트 워크'를 위해서는 기업이나 정부의 조직 문화의 혁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최고경영층과 관리자들이 업무 문화 혁신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인 성공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스마트 워크'는 유무선 통신망, 화상회의, 스마트폰 등의 물리적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워크'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신이나 기기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우리는 또 다시 '하드웨어 IT 강국'이라는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워크'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어 갈 '스마트 워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글로벌하게 통할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미 모든 일이 글로벌하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은 이미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실패했던 많은 '한국형'의 실패 사례들을 되돌아보고, '한국형'의 집착에서 벗어나 최고의 '글로벌 스마트 워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 등과 같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약점들을 '스마트 워크'로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워크'가 실현되면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뿐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일과 개인생활을 좀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등 많은 부가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CONTENTS



IBM J2EE 기반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대신 증권

04



국내 건설업계 최초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대우건설

06



통합협업시스템 'T-ONE'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동양그룹

08



몸집 가벼운 협업 솔루션으로 스마트 워크 도입
삼일제약

10



국내 최초 UC 협업 환경 구현
아모레퍼시픽

12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IBM

14



Smart Work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ibm.com/kr/smartwork를 방문하십시오.
다양한 성공사례는 ibm.com/smartwork/success(영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귀사도 저희 고객사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BM 고객사례에 관심이 있으시면 ibm.com/ibm/clientreference(영문)를 방문하세요.



대신증권은 1962년 출범하였으며, 1975년 주식 시장에 상장되었다. 주식, 선물, 옵션 매매 중개, 자기 매매, 인수 주선 업무 등 증권 관련 금융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전국지점 118개, 영업소 12개, 해외 사무소 1개 등의 영업망을 갖고 있다.

IBM J2EE 기반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시장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대신 증권

“시장에서 검증된 IBM J2EE 기반 프레임워크를 구축, 한정된 IT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보 시스템 운영비용의 최적화를 실현함으로써 시장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경쟁 핵심역량인 대고객 서비스의 향상에 더욱 주력하면서 선도 투자 은행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힘 쓸 것이다.”

- 대신증권 트레이딩 시스템부 최명재 부장

대형 투자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 최고 IT 기반 구축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선도 투자 은행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들의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신증권은 새로운 금융 환경과 치열한 경쟁 구도 하에서 대형 투자 은행으로의 도약을 위해 최고 투자 은행을 향한 신규 성장 기반 구축을 경영 목표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미래 성장 기반 강화, 최고의 전문성 확보, 투자 은행 인프라 확충 등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에 대비하여 자기 자본 및 가용 자본 확대, 차세대 시스템 도입 등 투자 은행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대형 투자 은행 실현이라는 기업 비전을 달성하고, 당사 핵심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며, IT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대형 투자 은행으로서의 역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업무 영역 확대, 자산 영업 강화, 자기 자본 투자 (PI) 및 이에 따른 위험 관리 능력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핵심 영업 부분인 Retail은 물론 Whole Sale 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 관리 능력과 다양한 맞춤형 상품, 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능력을 갖춘은 물론, 효율적인 영업 및 업무지원 시스템, One-Stop/Multi-Channel 서비스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한정된 IT 자원 및 정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최적화하고,

솔루션 구성요소

대신증권은 J2EE 환경 전환에서 있어 입증된 유일한 프레임워크 솔루션으로 IBM의 NeFSS를 선정하였다. IBM은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프레임워크의 제공 벤더가 됨으로써 이후 추가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인프라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 **IBM NeFSS 솔루션**
: J2EE 기반의 IBM 프레임워크
- **WebSphere Extended Deployment**
: NeFSS 솔루션이 WebSphere Extended Deployment 위에 구축
- **Rational Software Architect**
: NeFSS 통합 개발 환경
- **Rational ClearCase, ClearQuest**
: 형상/변경 관리
- **Rational BuildForge** : 빌드/배포 관리
- **Tivoli SMS** : 서버운영 솔루션
- **System p5**
: 차세대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선정
- **DS 8000** : 차세대 스토리지로 선정

주요 혜택

- 주문 처리 속도 증진 2배 향상
- 체결 처리 속도 증진 대비 3배 향상
- 상품 팩토리 도입으로 인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 변경 속도 향상
- 외부 개발된 컴포넌트 및 당사 시스템과의 연동 용이
-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등 IT 자원 표준화
- 차세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습득 및 활용으로 IT 자체 경쟁력 강화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다양한 정보의 분석 활용이 가능하고, 시스템 지원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다.

차세대 시스템은 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통합화, 자동화,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비즈니스 정책에 부응하는 IT 자원 활용, 비즈니스 방향성에 따른 효율적 자산 운용, 동적인 자원 활용 및 관리가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궁극적으로 대형 투자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업계 최고 IT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제는 비즈니스 부문에서 도출된 미래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핵심 역량 및 요구사항의 실행 수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IT 부문의 대 고객 서비스 제공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차세대 시스템

솔루션 선정을 위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및 표준화를 통한 업무 혁신 기반 마련과 저비용/고효율 시스템 구축을 통한 IT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대신증권은 차세대 업무의 기반을 제공하는 J2EE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IBM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을 통합한 전체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BMT를 통해 개발 단계부터 운영 단계까지를 보여준 IBM을 신뢰하게 되어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IBM은 차세대 시스템의 목표가 유연성 보장, 시장에 빠른 진입, SOA, CBD 등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은 TP Monitor가 아니라 J2EE 프레임워크임을 강조하였고, J2EE 기반의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이 IBM의 NeFSS 및 관련 솔루션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대신증권은 IBM의 J2EE 솔루션이 오픈 소스의 조합으로 인해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점을 IBM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 개선

유연성을 강조한 시스템은 신규 상품의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해줬다. 상품 팩토리를 이용하여 유사 상품은 8주에서 2주로 변경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신상품은 5주만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J2EE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 비즈니스 룰 엔진(BRE) 등 비즈니스 지향적 IT 기반 기술의 연계와 적용이 용이해지면서 시스템의 효율성과 편리성이 대폭 개선되어 주문, 체결 속도가 기존 환경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국내 건설업계 최초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구축

대우건설

“최근 비용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UC 환경 구축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대우건설 IT전략팀 고영남 팀장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의 필요

대우건설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산업은행 PEF로의 대주주 변경을 앞두고 독자적 그룹웨어가 필요했고, 최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위한 도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부재
- 협업을 위한 도구 미비
- 건설업계 특성상 외근/출장이 잦은 임직원의 업무 효율성 저하
- 스마트 폰 업무 전환 확산
- 분산된 업무환경
- 기존 시스템 성능 저하 및 노후화
-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IT 대응 미흡

솔루션 구성요소

- IBM UC Solution (Unified Communications)
- IBM Lotus Domino
- IBM Lotus Sametime

UC 솔루션으로 새로운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대우건설은 기존 MS 익스체인지 기반의 이메일을 IBM 로터스 소프트웨어 기반 UC 솔루션으로 재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UC 환경은 이메일과 전자결재, 화상회의, IP전화기, 게시판, 메신저, 모바일 등이 한꺼번에 연동되어 임직원들의 '스마트 워크' 환경을 지원하며 특히,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이메일, 전자결재, 게시판 이용 등을 가능하게 한다.

대우건설 IT전략팀 고영남 팀장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업무 효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UC 환경을 도입하게 됐고, 이번 UC구축과 스마트 워크를 통해 혁신을 실천하고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웹서비스를 사용한 ID/PW 로그인 가능하고, 전자결재 및 게시판을 활용하여 회사 문화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임직원정보조회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바일에서도 등록된 임직원에 대한 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iPhone 기반의 PUSH 메일 서비스도 지원한다. 임직원이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전자메일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어 업무 처리 속도는 물론 업무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한국IBM 로터스 사업부의 김욱 사업부장은 “IBM은 작년 아모레퍼시픽 UC 환경 구축 이후, 최적화된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업계의 신뢰를 꾸준히 쌓고 있다. 스마트 워크 실현을 통해 혁신과 성장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계속되는 기업의 협업 환경 구축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요 혜택

대우건설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환경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담당자 업무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활용 극대화를 통해 기업가치 창출의 효과를 확인하게 됐다.

- 외근/출장 직원 실시간 서비스로 탄력적 업무수행
- 즉각적 대응에 따른 신뢰도 향상
- 모바일 그룹웨어를 통한 정보 활용 극대화
- 업무 손실 및 지연 사례 감소
- 프로세스 개선에 따른 담당자 업무 시간 단축 및 직원 생산성 향상

UC (Unified Communication)

일반적으로 UC(Unified Communication)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만을 목적으로 하지만, IBM 의 UC는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일의 지연이 없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환경을 지향한다.





동양그룹은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협업시스템 '티원(T-ONE)'을 개통했다고 밝혔고, 앞서 2010년 4월초에는 동양종합금융증권에 티원을 처음 적용했다.

통합협업시스템 'T-ONE' 구축으로 효율성 향상

동양그룹

“다른 기업들은 지원하는 모바일 기기를 제한하지만 동양증권은 아이폰, 블랙베리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기기를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주로 임원들을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전사 직원들에게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다.”

- 동양종합금융증권 기업문화혁신팀 남정환 과장

비즈니스 과제

동양그룹은 계열사의 다양한 메일 시스템들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사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그룹의 업무 문화를 혁신하는 도구가 필요했다.

협업 업무 환경 구축에 초점

티원은 '동양(T)그룹 전체가 한(ONE) 곳에서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룹웨어·지식관리시스템(KMS)·업무관리시스템 등 3가지 시스템이 통합돼 있다. 티원을 통해 동양그룹은 그룹 전체가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룹 협업시스템 구축 프로젝트가 이제야 최종 마무리 됐다. 각 계열사별로 특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앞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 동양그룹 관계자

솔루션 구성요소

- IBM Lotus Notes
- 날리지큐브 KMS 솔루션

동양그룹은 2010년 4월 2일, 동양종금증권에 단독으로 오픈한 터윈을 3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나머지 15개 계열사에 적용했다. 그룹웨어는 그룹의 표준시스템인 IBM 로터스 노트로 통합했고, KMS는 날리지큐브 솔루션이 적용됐다. 새롭게 구축된 그룹 통합 협업시스템은 위키, 프레즌스(상태정보) 기능 등 엔터프라이즈 2.0 기능들이 대거 적용됐다. 동양그룹측은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때마다 위키 게시판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협업 환경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시 했기에 특히 학습 동아리(CoP)의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지난 4월 오픈한 이후 50개 이상의 CoP가 생성됐고, 그 중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많으며, 향후에는 보상 체계 등의 구체화를 통해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문서가 서로 매핑되도록 하여 하나의 업무 카드에 관련 업무의 모든 정보를 매핑시키고,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푸시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관리 시스템과도 연결했으며, 2010년 9월부터는 모바일 전자 결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

태스크포스(TF) 성격의 과제수행형 커뮤니티 경우(학습 동아리), 위키 게시판을 통한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프레즌스 기능을 통해 터윈에 접속한 사람의 상태정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초록색 상태정보의 접속자를 클릭하면 인스턴스 메신저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몸집 가벼운 협업 솔루션으로 스마트 워크 도입

삼일제약

“로터스라이브 솔루션을
통해 별도의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시간 투입 없이
본사와 전국 지사간의
협력적인 영업 회의 환경을
구축하게 됐. 실시간
협업과 미팅을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삼일제약 경영기획팀 강영식 팀장

비즈니스 과제

6개의 지방 지점, 해외 사업부, 공장, 연구소를 갖춘 삼일제약은 주간 영업 회의를 포함해 본사와 지사 간의 효율적인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고, 또한 실제 사용자들이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했다.

솔루션

삼일제약은 웹기반 협업 솔루션인 로터스라이브 인게이지 (LotusLive Engage)를 도입하였고, 향후 본사와 전국 6개 지사간 주간 영업회의를 중심으로 하는 협업 업무를 로터스라이브 인게이지를 통해 수행할 예정이다. IBM 로터스라이브는 웹을 통해 제공되는 협업 솔루션으로 별도의 구축 작업과 구축 비용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솔루션은 완벽한 보안환경에서 제공되며 온라인미팅, 파일 저장 및 공유, 인스턴트 메시징을 비롯한 웹 협업과 비즈니스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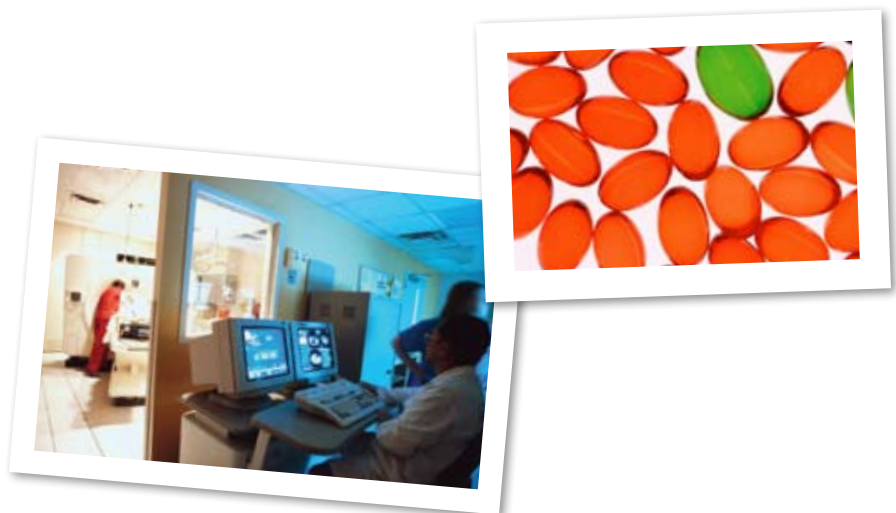
삼일제약 직원들은 로터스라이브 도입으로 영업회의를 위해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해오던 종전 커뮤니케이션방식을 웹 컨퍼런스와 온라인 협업 서비스로 대체하여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삼일제약 경영기획팀 강영식 팀장은 “로터스라이브 솔루션을 통해 별도의 인프라 구축 비용 및 시간 투입 없이 본사와 전국 지사간의 협력적인 영업 회의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며 “실시간 협업과 미팅을 통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로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IBM 로터스사업부 김욱 사업부장은 “최근 국내에서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조직간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스마트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IBM은 스마트 플랫넷 아젠다를 통해 지속적으로 ‘스마트 워크’ 실현을 위한 인프라와 솔루션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IBM 로터스는 기업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보다 효율적으로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비즈니스 형태와 조직의 형태에 따라 가장 최적의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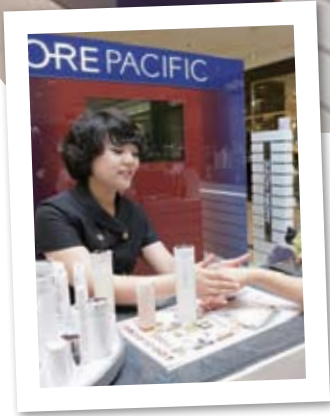
로터스라이브 인게이지(LotusLivaEngage)

웹 미팅과 협업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LotusLive의 대표 오픈링으로, 웹컨퍼런싱, 파일 저장 및 공유,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 등을 제공한다. LotusLive Connections 와 LotusLive Meetings 오픈링의 통합 솔루션 LotusLive Connections은 프로파일 관리, 팀 프로젝트 관리에 용이한 액티비티, 서베이에 활용할 수 있는 양식, 파일저장 및 공유, 인스턴트 메시징 등의 협업 기능을 제공하며, LotusLive Meetings은 통합된 웹, 음성, 비디오 컨퍼런싱 기능을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60여년간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대표기업으로서 한국 화장품산업을 선도해왔으며, 54년 업계 최초의 연구실 개설, 현대화된 대규모 생산설비와 앞선 기술개발력, 그리고 방문판매라는 새로운 판매경로 구축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국내 최초 UC 협업 환경 구현

아모레퍼시픽

솔루션 구성요소 및 서비스

- IBM Lotus Domino 기반 모바일 그룹웨어
 - 전자메일,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주소록 기능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도록 구현
- IBM Lotus Sametime 기반 UC 메신저 - "ABC2"
- 메신저와 그룹웨어/IP 텔레포니/모바일/화상회의 연동
- 4개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업 (코디얼, 케이엠에스랩, 해든브릿지, INSOFT)

비즈니스 과제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비전 달성을 위한 해외사업 확장과 사내의 다양한 혁신 활동으로 전사 및 특정 업무간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강력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필요했다.

IBM UC 솔루션 도입으로 통합 커뮤니케이션(UC) 협업 환경 구축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IBM과 파트너십을 맺고 UC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UC 협업 환경 구축을 진행해 왔다. UC 솔루션은 IBM의 로터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솔루션으로 메신저와 그룹웨어, 화상회의, 인터넷전화, 모바일 등이 한꺼번에 연동되는 UC 환경을 제공한다. 2009년 8월부터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아모레퍼시픽 직원들은 로터스 도미노(Lotus Domino)를 기반으로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메일, 일정관리, 주소록, 전자결재, 게시판 등의 그룹웨어에 접속할 수 있게 되고, 로터스 세임타임 (Lotus Sametime)을 기반으로 메일, 유무선 전화, 화상 회의 등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멀티채널 통신을
 통해 의사결정 시간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미
 (Beauty)와 건강(Health)
 을 위해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글로벌 톱10
 기업(Global Total-care
 Provider of Beauty &
 Health)의 비전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다.”

-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담당 김진우 상무(CIO)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업

직원과 파트너사간 협업도 보다 긴밀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멀티채널을 통해 국내 본사 및 지사 직원들간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실시간 협업이 가능해졌으며, 외부 판매사원과 파트너사 직원들간에도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 업무 수행 시간과 출장비, 통신비 등의 실제적인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아모레퍼시픽 정보기술담당, 김진우 상무(CIO)는 “아모레퍼시픽은 고객 친화적인 혁신 활동과 글로벌 사업을 위한 협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UC 환경 구축 프로젝트는 그룹웨어와 인스턴트 메시징, 모바일, 화상회의, IP 텔레포니가 모두 연동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국내 최초 UC 환경 구축이라는 자부심을 보였고, 한국IBM GTS, 김원중 대표는 “많은 선도기업들이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북돋울 수 있는 협력 인프라와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다 효율적이고 똑똑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화상회의와 스마트폰을 통한 업무 지원 등 새로운 IT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인프라와 솔루션이 필요하다”며 “한국IBM은 UC 솔루션을 중심으로 기업에 효율적인 협업 환경을 제공하고, 고객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한국IBM은 모바일 오피스 도입효과에 대해 검증 하였으며 도입 후 고정 비용 절감,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직원 만족도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국IBM



도입 배경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어 보다 신속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있고, 다른 시간 또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업무 형태가 변화하면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대 고객 영업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국IBM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했다.



“고객사를 저의 근무지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시간을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 한국IBM 김준성 과장

국내 최초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축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위해 먼저 FMC/FMS 및 사내 무선 랜을 구축했다. 휴대폰 하나로 기존 이동전화 및 일반전화는 물론 무선랜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평상 시에는 기존 전화망으로, 무선랜이 설치된 곳에서는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다.

IP 기반의 PBX를 구축함으로써, 음성 뿐 아니라 다양한 부가 애플리케이션과의 연동이 가능하게 했고, IP Telephony를 중심으로 그룹웨어, 메신저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합했다. FlexiMOVE를 통한 사내 모바일 직원들의 공간 효율적인 좌석 배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터치 방식의 키오스크(Kiosk), PC, 또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 직원들이 본인의 좌석을 예약하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웹브라우저 기반의 글로벌 프린팅 (Global Printing) 서비스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프린터의 위치를 선택하여 편리하고 간단하게 문서 출력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하고 있다.

주요 혜택

한국IBM은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통해 고정 비용을 절감했다. 사무 공간의 40%를 감축하고 확장을 억제함으로써 5년간 순비용 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고, 시설, 장비 투자에 대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었다. 교통 전쟁에서의 해방, 업무 집중도 강화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 또한 74% 증가했다. 대 고객 접촉시간이 25% 증가하고 현장에서의 문의에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직원들로 하여금 융통성 있는 일정 계획이 가능하게 하여 가족, 친지, 취미, 건강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또한 높일 수 있었다.

- **FMC (Fixed Mobile Convergence)** : 단말기 하나로 실외에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실내에서는 유선 전화망이나 IP 네트워크를 통해 통화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서비스
- **FMS (Fixed Mobile Substitution)** : 이동통신망만을 사용하되, 집안 등 특정지역에서 이동 통신요금을 유선보다 저렴하게 설정해 유선서비스를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 **IP PBX (Internet Protocol PBX)** : IP 전화 교환기) : 유선전화망 (PSTN) 이 아닌, IP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에서 voice 또는 video를 data network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전화 교환기



©Copyright IBM Corporation 2010

한국아이비엠주식회사

(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군인공제회관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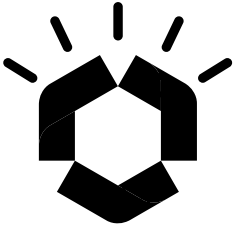
Tel : 02 3781 7800 한국IBM 마케팅 총괄본부

ibm.com/kr/smartwork

twitter.com/IBM_SmartWork

All Rights Reserved

IBM과 IBM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IBM사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회사, 제품, 서비스 명칭은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서비스
상품일 수 있습니다.



IBM